

# 臺灣의 農村을 돌아보고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權元達

이 글은 지난 2월 「대만」 토지개혁 훈련소에서 농지개혁과 농촌개방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의 權元達교수가 「대만」의 농촌을 돌아보고 적은 글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농업개황

1979년말 현재 대만인구는 17,479천명이며 총면적 35,990km<sup>2</sup> 중 토지면적은 전체의 41.5%인 16,917km<sup>2</sup>이다. 그 중 생산토지가 41.5%, 건축용지가 3.0%, 교통용지가 1.7%,

기타가 1.2%이다. 대만 본토는 남북의 길이가 377km, 동서의 넓이는 142km가 되는 중앙 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졌으며 해발 100m 이상의 토지가 70%, 100m 이하가 약 30%나 되며 산이 많은 섬나라이다.

대만은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 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과 강우량이 풍부하여 그 자연환경은 농업발전에 저극히 적합한 나라이다. 경작 면적은 915,000ha로 이 중 논이 56.3%, 밭이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25.4%에 불과하다.

농업인구는 5,638천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2.26%나 되며 그 중에서 자작농이 83.2%, 반자작농이 7.4% 소작농이 7.6%, 그리고 비경지 농민이 1.8%이다.

주요 농업지표를 보면 국민총생산액중 농업부문은 1960년의 32.78%에서 1979년에는 10.53%로 감소했으며 농림업생산액중 농업부문은 1960년의 전체의 64.0%에서 1979년에는 47.9%로 감소되었으며 임업부문은 같은 기간에 5.5%에서 2.9%로, 수산업은 9.6%에서 21.4%로 크게 성장했으며 축산업은 20.9%에서 27.8%로 성장했다.

농업성장률을 보면 1957~60년의 평균 3.2%에서 1979년에는 3.5%로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에 경제성장률은 4.2%에서 5.3%, 임업은 15.6%에서 10.2%, 수산업은 5.9%에서 8.9%, 그리고 축산업은 4.9%에서 10.9%로 각각 성장했다.

농가소득은 1960년의 28,873 N.T \$에서 1979년에는 8배가 늘어난 205,564 N.T. \$에 이른다. 우리돈으

로 환산하면 약 400만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농가소득의 구성을 보면 1960년에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구성이 84.2% 대 15.8%이었으나 1979년에는 38.6% 대 61.4%로 되어 있어 농외소득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농가교역 조건을 보면 197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60년에는 농가수취가격지수는 38.76, 농가지불가격지수는 39.25이던 것이 1979년에는 농가수취가격지수가 112.9, 농가지불가격지수가 118.55로서 교역조건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채 약간 불리함을 볼 수 있으나 그 변동폭은 안정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수출실태를 보면 1960년에 115백만\$이던 것이 1979년에는 14배인 1,610백만\$로 신장되었으며 총수출액중 농산물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66.13%에서 1979년에는 10.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농산물중 원료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수출액이 각각 670백만\$, 940백만\$로서 가공농산물 수출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대만농업은 쌀과 고구마를 중심한 농산물과 바나나, 파인애플을 비롯한 과실류 그리고 사탕수수가 주종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볼때 토지이용도를 표시하는 작부지수는 1960년의

184.1에서 1979년에는 163.3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토지이용도가 오히려 감소되어 감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작 이모작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있다 한다.

주요농산물생산실적을 보면 미곡이 1960년의 1,912천 ㄱ에서 1979년에는 2,450천 ㄱ으로 128%정도 증가한 것으로 미곡의 식부제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고구마는 같은 기간에 2,979천 ㄱ에서 1,225천 ㄱ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콩이 53천 ㄱ에서 32천 ㄱ으로, 땅콩은 102천 ㄱ에서 86천 ㄱ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차생산은 같은 기간에 17천 ㄱ에서 27천 ㄱ으로, 바나나는 104천 ㄱ에서 227천 ㄱ으로, 사탕수수는 6,736천 ㄱ에서 9,121천 ㄱ으로, 양송이는 23천 ㄱ에서 103천 ㄱ으로 그리고 수박은 48천 ㄱ에서 313천 ㄱ으로 증가되었다.

축산물도 같은 기간에 소는 19,459두에서 47,010두로, 돼지는 2,140천두에서 7,428천두로, 육계는 15,300천수에서 94,153천수로 증가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곡물을 비롯한 작물생산은 감소한 반면 청과물과 경제작물 그리고 축산물과 같은 성장농산물이 크게 늘어났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대만농업이 지니는 구조적 전환으로서 이에 따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2. 대만 농업의 특징

대만농업은 한말로 말해서 자연과 싸우면서 극복하는 농사가 아니라 자연의 덕을 보면서 순응하는 농사를 짓고 있다.

남북으로 뻗은 지형상의 서남쪽은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해안의 동북단 基隆구능과 대부분지는 수도이모작지역일 뿐만 아니라 채소재배가 잘 되는 집약농업지대이다. 그 서쪽은 임구대지로서 사악지대이기 때문에 茶園이 발달되어 대만 제일의 차경작지대이다. 그 남쪽은 扇狀地인 桃園沖積扇으로 소류지가 많아 관개가 잘된 곳이며 일제하 1915년에 완성된 도원대천(수로)은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 미국원조로 완공한 석문댐은 관개 면적을 넓혀 북부제일의 쌀 생산지다. 그 남쪽은 차와 감귤이 생되는 죽동구능, 서쪽이 수도작지대인 신죽평원이다. 여기서 남으로 뻗은 묘물과 동새구능은 대만 바나나의 중심산지이다. 여기서 남하 200km의 구릉지도 바나나, 파인애플의 산지이다.

대부분지는 역시 수도지역이고 연초산지이기도 하다. 탁수계로 만들

어진 대선상지의 복반부인 창화평원도 쌀과 사탕수수의 주산지이며 가남대원은 대만 최대의 평야지로서 옛부터 쌀과 사탕수수 그리고 잡곡을 윤작했던 곡창지대이다.

지대별로 기상조건에 적당한 작목을 배합하고 있는 천연의 농업경영 형태가 이들 농업경영의 특징이다. 최근에는 관개배수시설이 잘되어 수도작 재배조건은 최적으로 유리하며 이모작 가능성을 합하면 쌀생산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한다. 다만 1975년부터 미가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지지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이 늘어나기는 하나 정부는 사실상 생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민들도 경제작물과 비교하여 쌀 농사가 결코 유리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대만의 수자원관리는 철저하게 잘되어 있다. 그들은 관개 이외에도 다목적으로 치수를 잘하고 있으며 국토 여러곳에서 볼 수 있는 늪과 소하천에는 오리를 사육하고 있을 정도다.

대만농업은 기후와 토질에 알맞게 지대별로 입지하고 있다. 정부는 증산을 위해 다원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농작물생산은 1978년에는 감축되었다. 미곡생산은 아직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종래의 미곡위주 생산에서 경제작물로 전환시켜 해의 수

출을 장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여 간다지만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들은 농업정책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의미로 접근시켰고 그것이 크게 경제성장을 도왔던 것이다. 초기에는 공업과 농업간에 자원이용상의 경쟁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부분으로의 집중투자가 가능하였으며 여기에 농업발전을 특징짓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전략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즉 기술혁신, 자원개발, 사회하부구조의 건설, 강력한 농민조직, 효율적인 지도사업과 경제적 각종 유인정책들, 이를테면 토지개혁, 특용작물의 가격보장, 농업자재의 적절한 공급, 마케팅 제도의 개선등이 오늘의 대만농업을 특징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 3. 농촌과 농민생활

대만의 지역발전은 국민, 정부 그리고 사회 각 방면에서 공동으로 주민생활개선 및 사회건설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환경개선과 위생정리 그리고 빈곤소멸과 북

지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포장, 공동우물, 하수도, 공공목욕탕건설, 주택 위생시설, 오락센터, 부녀 유아의 위생지도등 다목적 사업으로서 주민부담과 정부보조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농촌은 외형상으로는 크게 변화된것 같지 않지만 모든 농촌도로의 포장화와 각종 통신시설의 확장은 농촌과 도시환경의 여건조성에 별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농촌의 사회화부구조의 개조는 농업생산여건 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환경을 유리하게 하여 농가가 구매 및 판매과정과 시장환경에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농민생활을 보면 1979년의 경우 100가구 중 T.V세트는 95.3대 냉장고가 82대, 전화가 14대, 전기밥솥 95대, 가스스토브 95대, 세탁기 35대, 선풍기는 156대나 보급되었으며 실제로 주거환경은 수수하게 되어있으나 그들이 사용하는 각종 시설은 도시가구와 거의 비슷했다. 특이할만한 것은 대만의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도시 농촌할 것 없이 공동수준수단이다. 어떤 농가나 오토바이를 1~2대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외의 교통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125cc 오토바이 가격은 우리돈으

로 대당 65만원 정도라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된 것 같다.

농민생활은 농가소득중 농의소득에 많이 의존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겸업농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지속적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전업농육성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각종 작목들이 지대별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빈부차가 심각한 것 같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공장입지가 지방분산적으로 되기 때문에 농업노동자의 고용기회증대는 물론 지가가 상승하여 농가자산이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농촌에 부채지주가 흑간 있어도 농지문제의 본질이 농지소유보다 농지이용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은 농지개혁을 통해 소농형태의 분산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농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것 같다. 최근에 공장입지가 이루어진 인근지역은 5년내에 연간 평균 20%이상 농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니 우리의 비교된다.

특이할만한 점은 농민들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정직하게 일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

이다.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갈매기 형의 대만농회는 농민의 경제적 구심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민주도장이라 할 수 있다.

## 1. 대만 농업의 당면과제

급격한 경제발전과정을 통해 대만 농업은 괄목한 성장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몇가지 과제를 안고있다.

첫째로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가 증대함에 따라 생산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겸업농의 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의소득비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노임상승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농산물 생산은 증대되고 주요 농산물가격은 오히려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농업생산에서 이윤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넷째, 외환보유고가 증대함에 따라 어떤 농산물은 생산비가 낮은 외국농산물을 수입하려 하기 때문에 국내농산물과 경쟁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농가로 하여금 토지생산능력보다 노동생산능력에 역점두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토지가 지니는 농업생산성 기능은 약화되고 노동과 특히 자본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겸업소득의 계

속적 증대는 농가의 농업소득보다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나 농업 생산시설의 투자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또 정부의 적절한 가격정책이나 보조정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농업생산은 감소할 것이며 식량자급도도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의 감소는 농가소득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 한다. 왜냐하면 농의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생산의 증대는 농가소득의 증대와 직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가는 고가의 농업생산자원에 다 많은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직면한 농업문제를 요약하면 노동력 부족, 농업자재의 비용증가,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업자본보수율의 낮음, 농업과 비농업간의 교역조건 불리등으로 지적된다.

## 5. 향후 농업정책

대만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제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떤 처방을 하고 있는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지의 이용과 경작지를 보전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다. 농지개혁의 성공된 결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농지이용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그들이 취하는 토지보호정책은 이용별로 분류하고 지역별 계획을 세운 다음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어떠한 투기도 생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농업용 토지는, 대체로 한계경지를 이용케 함으로서 농용지 감식을 피하고 농용지는 장기농업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농업생산환경을 유지하며 투기를 방지하도록 최적 토지이용계획이 수행되고 있다.

둘째, 겸업농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에 취업할 수 있게 훈련과 직업교육을 계속받을 기회를

주며 이들에게는 합작 또는 청구경작이 가능하게 융통성 있는 농지제도룰 구상중이다.

셋째, 소규모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구입이 가능토록 지원해 주고 가족 중 비농업으로의 전환을 장려 지원하며 완전 전업시에 지원해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넷째, 농촌의 하부구조와 농사시험 지도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 및 판매과정에 자금지원을 확장하고 있다. <계속>

## 알맞는 농약 · 희석배수 업수

(꼭)

## 적기 · 적량살포가 약효증진

(알)

(아)

(뚝)

(시)

(다)

농약을 사용할때 대부분의 농가가 희석배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농도에 다량살포를 하고 있어 약효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에 알맞는 농약” “약중별 희석배수 업수” “적기에 적량살포”는 사용자가 지켜야할 중요한 일입니다.

농약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농약을 올바르게 알고 농업증산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것이 바른 길입니다.

$$\boxed{\text{알맞는 농약}} + \boxed{\text{희석배수 업수}} + \boxed{\text{적기적량살포}} = \boxed{\text{안전다수확}}$$